

해남 '호텔 울돌소리', 공공숙박 경영 혁신모델

개장 넉달만 객실점유율 70%…소규모 호텔 성공모델
32개 객실·뷔페·레스토랑·카페 등 우수영권 관광 각광

해남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호텔 울돌소리'가 개관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공공기관 숙박시설 추진 사업의 혁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울돌소리는 숙박업계의 '50객실 흑자 공식'을 깨고 32객실만으로 조기 이익 실현에 성공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장한 호텔 울돌소리는 개장 첫 달 55.9%의 객실 점유율로 출발해 11월 57.8%, 12월 66.4%까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올해 들어 1월에는 77%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간주하는 70%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 문제로 인해 최소 50객실 이상 규모가 돼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호텔 울돌소리는 지하 1층·지상 3층, 32객실 규모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해 개관 4개월 만에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남 우수영권 관광지 내에 위치한 울돌소리는 30.4m의 소형부터 72.5m²의 기족형의 32개 객실과 조식뷔페, 연회가 가능한 레스토랑, 카페 등을 갖추고 우수영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호텔전용 축구 인조구장과 3개의 이벤트홀도 보유하고 있어 전지훈련팀의 방문과 지역 행사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출장과 업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어 청년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등이 원격 근무할 경우 체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라남도 블루워커아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돌소리의 성공적인 개관·운영의 비결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에 있다. 위탁운영 사업자인 대일인터내셔널하스피탈리티는 전국적인 체인을 보유한 호텔 전문 종전기업

으로, 예약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활용한 경영노하우를 최대로 발휘해 호텔 경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우수영권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 우수영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체의 관광 지원도 한몫했다. 호텔 인근에는 명량대첩의 역사적 현장인 울돌목을 비롯해 명량대첩해전사기념관, 법정스님 생가가 위치해 있다.

또한 해남과 진도 사이를 잇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등 체험형 콘텐츠가 밀집해 있어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매년 9월 열리는 명량대첩축제 시기에는 더욱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호텔 울돌소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운영사와 협력해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gwangnam.co.kr



해남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호텔 울돌소리'가 개관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공공기관 숙박시설 추진 사업의 혁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호텔 울돌소리 전경.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진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진도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체계·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종합 점수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민원 담당자 보호 등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불법주차와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운영한 사례가 민원 분석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강진버스여객터미널,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스마트 시스템 도입 정보 안내 주차타워 설치·쉼터 공간 조성

연간 50만명이 이용하는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강진군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터미널 매입을 마무리하고, 연면적 3652m² 규모의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 오래된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환경을 한층 편리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한 시스템까지도 도입해 정보 안내와 관리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용자 편의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간의 쓰임새 달라진다. 터미널 내부는 단순한 대합실에 머물지 않고, 강진을 알리는 '강진진흥보관'으로 운영되며 관광·문화·특산물 등 지역의 매력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또 청년창업과 커피숍 같은 생활밀착형 기능도 담아, 누구나 부담 없이 들르고 머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넓혀갈 예정이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타워 설치도 함께 검토된다. 터미널 이용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결까지 고려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터미널의 모습은 '교통시설' 그 이상이다. 오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

완도, 인재 육성 교육에 15억 투입

입학 축하금·교육자치협력지구 지원 등 추진

완도군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5억원 규모의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 무상 급식 지원, 완도군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우월 군수는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며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으로 외국어 교육 역량을 키우고, 보길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

축 지원 등 체계적인 학습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지난해 군이 교육부의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 특화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 졸업생 주거비·인건비 지원 등으로 완도만의 특화된 교육 모델 구축 및 정착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월 군수는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며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종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